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자기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베트남 종교 자유, 20년 전보다 악화



베트남이 20년 전 ‘종교 자유 특별우려국’(CPC)으로 지정된 후 초기 성과가 있었지만 현재는 다시 악화됐다고 새로운 보고서가 전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2004년 베트남은 종교적 권리를 개선하기 위한 합의를 체결했지만 그 이후로 종교 자유가 퇴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는 베트남 정부가 2005년 합의 조건을 대부분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 적용의 일관성 부족으로 종교 자유 상황이 전반적으로 악화되었다고 밝혔다. 미국은 베트남 지도부와 긴밀한 대화를 해 왔으나, 국가 차원의 종교 자유를 확보하기 위해 추가적인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제안했다.

2004년과 2005년 베트남의 종교 자유 특별우려국 지정은 종교적 권리를 위해 구속력 있는 합의로 이어진 유일한 사례다. 베트남은 2005년 미국 국무부와 구속력 있는 합의에 따라 새로운 종교적 권리 법률을 시행하며 지역 당국에 새로운 법을 따르도록 지시하고, 종교단체가 예배당을 열 수 있는 절차를 간소화할 것을 약속했다.

당시 베트남은 중부 고원 지역에 폐쇄된 교회를 재개, 신앙 포기 강요를 금지, 교회 등록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지침을 발표했다. 그러나 신앙 포기 강요 금지 조항에는 이를 강요한 가해자들에 대한 형사 처벌은 명시되지 않았다. 베트남은 또한 종교단체의 등록 및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청서에 대한 공식 답변 기한을 명시하며, 거부된 경우 서면으로 그 이유를 설명할 것을 보장한 ‘법령 22호’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베트남에서는 전례 없는 수의 종교단체가 등록했으며, 2006년 종교 자유 특별우려국 지정이 철회된 지 1년 만에 미국은 베트남에 영구적인 정상무역 관계(PNTR) 지위를 부여하고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승인했다. 하지만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와 다른 관측자들은 종교 자유 특별우려국 철회와 무역 정상화가 시기상조였다고 주장했다며 그 후 수 년 동안 베트남에서 새로운 종교 규제 법률의 시행은 지역별로 일관되지 않았고, 반체제 인사와 소수민족에 대한 광범위한 권리 침해가 계속됐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1998년 국제종교자유법(IRFA)은 미국 행정부가 종교 자유 특별우려국에 제재를 부과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베트남에서 무역 목표를 추구하던 미국 행정부의 일부 인사들로 인해 베트남은 제재에서 미국 대통령의 면제를 받았다. 2022년 미국 국무부는 베트남을 처음으로 종교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에 가담하거나 용인한 ‘특별 감시 목록’(Special Watch List)에 올렸으며, 2023년에도 그렇게 했다(출처: 크리스천투데이 종합).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 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잠언 1:19,22-23)

하나님, 미국과 베트남과의 무역 관계에 따라 베트남의 종교의 자유가 좌지우지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을 주님께 아뢰니다. 하나님 경외함 없는 어리석음과 자국의 이익에만 몰두해 있는 위정자들의 거만함을 꾸짖으시고 주의 책망하심을 듣고 돌이키게 해주십시오. 베트남에서 점점 심해지는 박해에 직면해 있는 소수의 기독교인들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고난 중에도 성령으로 충만하여 복음을 선포케 하옵소서. 그리하여 베트남의 모든 영혼이 생명의 근원 되신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되게 하소서.

한주간 긴급기도 [소그룹1]

▲ 파키스탄 기독교 여성, 신성모독법 위반 사형 선고

네 자녀를 둔 파키스탄 기독교인 여성이 신성모독법 위반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다고 모닝스타뉴스가 19일 보도했다. 샤구프타 키란(40)은 신성모독법 제295-C조항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았다. 라나 압둘 하미드 변호사는 “이슬라마바드 무함마드 아프잘 마조카 추가제션 판사가 3년간의 재판 끝에 30만 루피(약 144만 원)의 벌금을 선고했다”고 덧붙였다. 키란은 지난 2020년 9월 소셜미디어 왓츠앱에 이슬람 선지자 무함마드를 모독하는 내용을 공유한 혐의로 2021년 7월 29일 이슬라마바드에서 연방수사국(FIA)에 의해 체포됐다. 그녀의 남편과 두 아들도 습격을 받고 구금됐으나 이후 석방됐다. 하미드 변호사는 키란이 재판 내내 흔들리지 않는 용감함을 보였으며, 법원이 구체적인 명령을 내린 후 항소를 제기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사회정의센터(CSJ)에 따르면 1987년 이후 신성모독 혐의로 기소된 사람들은 거의 3,000명에 달하며, 올해 1월과 6월 사이에는 103명이 기소됐다.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 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악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고린도후서 13:8-9,13)

하나님, 파키스탄에서 기독교 여성이 신성모독법에 의해 사형선고를 받았지만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그 심령을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무슬람들에게 기독교인을 향한 테러나 살해의 명분을 주며 이슬람 세력만을 위해 사용되는 신성모독법이 속히 폐지되게 하소서. 이들에게도 죄인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와 돌이킴의 기회를 주시길 간구합니다. 키란 자매와 가족, 이 땅의 성도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함께하시어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로 영혼을 강건케 하옵소서.

▲ 온두라스, 마피아깡단 위협으로 만성적 폭력 노출

온두라스가 인구의 30%가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 처한 가운데, 점점 더 많은 온두라스인이 만성적 폭력에 노출돼 있다고 최근 유엔인권사이트 릴리프웹이 전했다. 온두라스에서 마피아, 깡단, 조직범죄가 인구의 상당수를 위협하고 있으며,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고 영토를 자유롭게 이동하는 데 실질적인 장애물이 되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살인 사건은 감소했지만, 작년에는 인구 10만 명당 31건이 발생했다. 이는 한 달 평균 253건의 살인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특히 2023년에는 여성과 청소년 380명이 살해당했다. 전체 피해자 중 28%는 18세에서 30세 사이의 젊은이들이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시편 56:3,13)

하나님, 범죄 조직들에 의해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할 정도로 피해를 입은 온두라스에 주님이 생명의 빛 되심을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그 땅에 기승하는 범죄조직과 어둠의 세력을 꾸짖어 주시고 하루에도 수많은 살인사건으로 두려움에 있는 영혼들이 우리의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주님, 가톨릭이 지배적인 이 나라에 적은 무리라도 같은 주님의 몸 된 교회가 빛 되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케 해주십시오. 그리하여 십자가 복음의 빛 아래에서 모든 죄악과 두려움에 실족지 않는 주의 백성으로 일어나게 하소서.

“여호와를 주를 찾는 자의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이슬람 민병대, 기독교인 농지 61만 평 압수



이슬람 민병대 사령관이 튀르키예 국경 근처 시리아 북부 라스 알-에인 마을에서 기독교 농부들로부터 약 61만 평의 농지를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역은 카타르와 튀르키예의 지원을 받는 시리아 국군에 속한 이슬람 민병대 연합의 통제하에 있다.

영국의 인권단체인 세계기독교연대(CSW)는 현지 소식통을 인용, “라스 알-에인에서 인권 침해에 연루된 주요 단체로는 알-함자트 대대와 자이시 알-샤르키야가 있다”며 “자이시 알-샤르키야의 지도자인 아부 잠모 사령관이 압수를 명령한 인물로 지목됐으며, 미국은 이들 단체에 제재를 가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르면,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민병대가 농부들에게 부과하는 세금을 20%에서 35%로 인상하겠다고 위협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부족장은 “기독교 공동체가 특히 교육, 농업, 의료 분야에서 그 지역의 번영에 크게 기여했다”며 이들의 몰수 행위를 강력히 비판했다. 그는 “우리는 남아 있는 기독교인들이 떠나게 될까 걱정한다”고 우려했다.

유명한 시리아 기독교 정치인이자 ‘시리아 기독교인 권리와 대화’(SCRD) 대변인인 아이만 압델누르는 세계기독교연대와의 인터뷰에서 “이 범죄 집단은 모든 종교적·민족적 배경을 가진 지역사회를 억압하고 공포에 떨게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들의 위반 중 일부는 반인륜 범죄에 해당된다”며 “영국 및 미국 정부, 유엔, EU 차원에서 국제사회에 이 같은 문제를 계속 제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국제사회는 시리아 반대파와 이 단체들을 지지하고 자금을 지원하는 정부에 압력을 가해, 그들을 제지하고 법의 심판대에 세우도록 해야 한다. SCRD는 EU에 대표단을 파견하고, 이 단체들과 그 배후에 있는 이들을 폭로할 것”이라고 했다.

세계기독교연대의 설립자인 머빈 토마스 회장은 “극악무도한 인권 침해는 처벌받아야 한다. 시리아 반대파와 카타르, 터키 정부는 민병대의 통제하에 있는 지역의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이러한 끔찍한 행위를 종식하기 위해 즉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6월 방문에서 시리아 제20사단 사령관은 라스 알-에인의 기독교 공동체를 만나, 줄어드는 기독교 인구를 지원하고 보호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장 상황은 여전히 불안정하다. 북부 시리아에는 쿠르드족, 아랍인, 아시리아인, 무슬림, 기독교인, 야지디족 등 매우 다양한 시리아인들이 살고 있다(출처: 크리스천투데이 종합).

여호와께서 영원히 앎으심이여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시편 9:7,9-10)

하나님, 시리아 내 이슬람 민병대가 기독교인들의 농지를 탈취할 뿐 아니라 지속적인 폭정과 반인륜적인 행위로 불안정한 상황 가운데 놓인 이 땅을 돌아보옵소서. 이들이 주께서 영원한 보좌 위에 앉아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실 때가 임박하였음을 깨달아 악한 행실에서 돌이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삶의 터전을 빼앗긴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주께서 친히 믿음의 터가 되어 주셔서 환란의 때에 더욱 주님을 찾게 하소서.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가 되시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주의 성도들이 크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한주간 긴급기도 [소그룹2]

▲ 우크라, 6-8월 민간인 사상자 3,200명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습으로 올해 6-8월 사이 우크라이나에서 기록된 민간인 사상자는 3,200명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3.7% 증가했다고 노르웨이 난민 위원회(NRC)가 23일 밝혔다. 노르웨이 난민 위원회 우크라이나 국장 로베르트 빌라-섹스토는 “올 여름 공격이 증가해 우크라이나 전역의 공동체들은 발사된 미사일과 드론의 끊임없는 폭격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에서 최근의 공격이 에너지 인프라, 특히 전력 생산과 같은 중요한 시설에 큰 피해를 입혔다. 그 결과,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생산 능력이 전쟁이 시작된 이후 절반 이상으로 감소했다. 이로 인해 사람들은 겨울이 다가옴에 따라 난방과 전기 같은 기본적인 에너지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활을 기다리라(유다서 1:19-21)

하나님, 러시아의 공격으로 최근 2개월간 우크라이나 민간인 사상자가 3천 2백 명이 넘어서고 있는 끔찍한 소식 앞에 주의 자비하심을 구합니다. 분열을 일으키는 육에 속한 자들을 꾸짖어 주시고 해가 지나도 전쟁을 멈추지 않는 두 나라 간의 대립이 멈춰지고 속히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전쟁으로 인해 터가 무너져 다가오는 겨울을 염려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몸 된 교회가 힘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기도하며 겸손함으로 섬기는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거룩한 믿음 위에 서는 주의 백성 되게 하소서.

▲ 에콰도르, 60년 만의 최악 가뭄으로 전력난 심각

수력 발전 비중이 매우 높은 남미 에콰도르가 60년 만의 최악의 가뭄으로 심각한 전력난을 겪고 있다고 24일 연합뉴스가 전했다. 에콰도르 에너지광산부는 “최근 이어진 급격한 기후 변화로 향후 며칠간 전력공급 시간을 재설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오는 29일까지 지역별 순환 정전 일정을 발표했다. 당국은 수도 키토와 최대 경제도시 과야킬을 비롯해 전국 곳곳에서 이날부터 주말까지 12시간 안팎의 정전을 예고했다. 현지 일간 엘우니베르소에 따르면 안토니오 곤칼베스 에너지 장관은 “위기에 대처하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비와 전력 공급 시간을 기다리는 두 가지밖에 없다”며, 순환 정전 종료 시점에 대해 “오직 신만이 알 수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전체 에너지원의 75%를 수력발전으로 충당할 정도로 그간 풍부한 수량을 자랑했던 에콰도르는 지난해 연말부터 극심한 물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현지에서는 엘니뇨 기상 패턴과 관련한 가뭄과 고온 현상을 주원인으로 꼽고 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신명기 11:13-14)

하나님, 풍부한 수량을 자랑했던 에콰도르에 최악의 가뭄으로 인한 심각한 전력난으로 하늘의 비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이 땅을 다스려 주십시오. 에너지 장관의 고백과 같이 이 모든 문제의 마침표 되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혼이 가난한 심령으로 나아와 주의 선하심을 구하게 하옵소서.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해 섬기는 자에게 약속하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성도들의 충성과 기도를 통해 응답하여 주소서. 주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들에게 생수의 근원 되신 그리스도를 기업으로 주사 영원히 막마르지 않은 복을 얻게 하옵소서.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이슬람 영향력이 커지는 유럽, MBB 신자들 위협 증가



무슬림 배경의 기독교인(Muslim Based Believer, MBB)들이 이슬람국가에서뿐 아니라 유럽에서도 위협을 받고 있다고 인터내셔널크리스천컨선(ICC)이 최근 전했다. 이탈리아, 네덜란드, 영국 같은 나라로 이주한 후에도 MBB 신자들은 여전히 그들의 이전 종교의 신자들로부터 괴롭힘, 위협, 또는 신체적인 공격을 받고 있다.

유럽 기독교 혐오감시센터(OIDAC)는 8월 22일, 반기독교적 혐오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기물 파손, 신성모독 같은 범죄에서부터 방화, 신체적 공격, 몇몇 경우에는 살인에 이르기까지 범죄의 심각성이 다양하게 나타났다. 특히,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이러한 범죄의 주요 표적이 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이러한 범죄의 주요 표적이 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영국 기독교국민연합(CPA)의 지도자인 시드 코들은 2005년부터 이 문제에 관여해오면서, “MBB 신자들에 대한 미묘한 박해가 확실히 공개적 박해로 달라졌다”고 말했다. 파키스탄 출신으로 영국에 거주하던 MBB 신자인 니사르 후세인이 두 명의 무슬림 남성에게 공격당했다. 이 중 한 명은 곡괭이 자루로 무장하고 있었다.

또 다른 주목할 만한 사건은 튀르키예 출신 MBB 신자이자 난민인 하툼 타쉬를 둘러싼 사건이다. 그녀는 영국에 도착한 후 이슬람교에 대한 공개적인 비판자가 되었고, 2021년 7월 런던에서 대낮에 칼에 찔렸다. 일부 유럽 도시들에서는 기독교인들, 특히 MBB 신자들이 박해를 받고 있다.

그러나 박해가 더욱 빈번하게 발생하는 곳은 독일의 난민 캠프와 같은 특정한 제한된 지역이다. OIDAC 관계자는 이 공격들 중 일부는 무슬림인 난민 캠프의 경비원들에 의해 자행됐으며 “유럽에서 MBB 신자들에 대한 폭력은 매우 민감하고 정치적으로 논란이 되는 문제다. 이 문제에 대응하기를 꺼려하는 정부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대부분의 언론들은 이슬람 혐오자로 낙인찍히는 것을 두려워해 MBB 신자들이 겪는 문제를 다루기 꺼려한다. 관계자에 따르면 MBB 신자들과 함께 일하는 NGO들이 빈번한 협박과 신체적 공격을 경험하고 있다. 유럽 민주주의 국가들이 신앙의 자유를 표방하고 있지만, MBB 신자들에게는 이러한 자유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다.

유럽 전역에서 MBB 신자들이 성경 공부나 세례 준비 같은 종교 활동을 할 때, 개종 사실이 가족이나 지역 사회에 알려지면 큰 위협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종종 비밀리에 진행한다. 북미 지역에서는 MBB 신자들은 유럽만큼 심각한 박해를 겪지 않지만 가족이나 사회로부터의 거부감이나 심리적인 부담은 여전히 크다(출처: 복음기도신문 종합).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가 너를 그의 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 방패가 되시나니(시편 91:1-2,4)

하나님, 고향을 떠나 이주한 유럽에서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괴롭힘과 위협을 당하는 무슬림 배경 신자들의 삶을 돌봐주소서. 신앙의 자유를 표방하지만 MBB 신자들에 대한 폭력에 대해서는 대응을 꺼려하는 나라들에 주의 공의를 선포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박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난민 캠프와 특정 지역의 안전을 주께 의탁드리오니 전능자의 날개 아래 피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더욱 진리 위에 굳건히 세우소서. 복음의 빛을 잃어가는 유럽이 이들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주가 베푸신 은혜를 사모하게 하옵소서.

▲ 우간다, 복음 전하던 전도자 구타 당해

무슬림 인구가 밀집된 동부 우간다에서 전도자 로버트슨 에리엇(41)이 무슬림들에게 폭행당해 머리 부상과 손 골절로 병원에 입원했다고 모닝스타뉴스가 25일 전했다. 에리엇과 동료 전도자 케파 무키사는 부시아 지역의 이슬람 지도자 칼리무 셰이크의 집을 방문해 복음을 전하던 중 칼리무가 격분하여 무슬림들에게 이들을 공격하라고 명령했다. 무키사는 칼리무가 “이들은 우리 사람들을 잘못된 종교로 개종시키려는 기독교인들이다”라고 외치자마자, 여러 사람들이 집에서 나오며 지어드 슬로건인 ‘알라 아크바르(Allah Akbar, 알라는 위대하시다)’를 외쳤다고 말했다. 무키사는 도망쳤지만 에리엇은 붙잡혀 심하게 폭행당했다. 에리엇은 머리에 깊은 부상을 입었고 왼손이 골절됐으며 오른쪽 다리 허벅지 부근에 타박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에리엇은 이웃들의 도움으로 병원으로 옮겼지만, 그의 가족은 병원비와 생활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간다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기독교인들의 박해는 여전하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고린도후서 12:9)

하나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박해의 위험에도 담대히 복음 전파를 위해 헌신한 전도자 에리엇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복음을 위하다가 받은 핍박으로 그의 영혼이 낙심치 않게 하시고 오히려 고난을 크게 기뻐하고 사랑하는 예수 교회로 담대히 일어나게 하옵소서. 박해를 직면하고 있는 우간다의 교회가 이러한 증인들의 믿음을 통해 약한 그 때에 강함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들게 하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교회를 통해 우간다의 영혼들을 주께로 돌이켜 주옵소서.

▲ 프랑스, 작년 낙태 24만 3,623건...20대 낙태 증가

프랑스에서 지난해 총 24만여 건의 낙태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프랑스 사회·보건 분야 통계청(DREES)이 25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프랑스에서는 총 24만 3,623건의 낙태가 이뤄졌다. 이는 2022년(23만 4,968건)보다 8,655건 많다. 지난해 낙태 규모를 여성(15-49세) 1,000명당 낙태율로 환산하면 16.8건으로, 2022년의 16.2건보다 늘어났다. 특히 20대 젊은 층의 낙태가 증가했다. 지난해 20-24세 여성 1,000명당 낙태 건수는 28.2건으로 전년도보다 1.0건 늘었다. 25-29세는 29.9건으로 전년 대비 1.2건 증가했으며, 30-34세도 25.8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프랑스에서 이뤄진 낙태의 79%는 약물, 20%는 도구를 사용했다. 한편 프랑스는 1975년 처음 임신 10주 이내의 낙태를 합법화한 이래 여러 차례 법을 개정했으며, 올해 3월 세계 최초로 헌법에 낙태의 자유를 명시했다. 프랑스에서 낙태는 건강보험으로 100% 보장된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갈라디아서 5:16-17)

하나님, 낙태 합법화 이후 낙태 건수가 점차 늘어가는 프랑스 가운데 주님의 진리를 선포하여 생명을 죽이는 악법이 그 땅에서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죄로 말미암아 육체의 욕심대로 정욕 가운데 살아가는 프랑스의 영혼들이 그의 결국이 하나님의 심판과 영원한 사망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프랑스의 교회를 일깨우사 십자가의 복음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영생의 삶을 선포케 하여 주소서. 그리하여 프랑스가 성령을 따라 행하여 육체를 거스르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